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4년 5월

선교편지 제 175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디고스’는 민다나오 섬 내의 26개 행정 주의 하나인 ‘다바오 델 수르 (Davao del Sur)’의 수도입니다. 디고스에 주정부가 위치하여, 관할 지역의 행정, 병원, 건설, 교육, 교통, 심지어 교도소와 같은 곳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고스는 역사가 오래된 도시가 아니라, 인근 각 지역으로부터 다양한 소수 부족들을 집단으로 이주시켜 마을 (Village)을 형성한 비교적 신생 도시에 속합니다. 주 정부가 소유한 토지를 디고스로 이주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디고스는 다양한 소수 부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특이한 형태로, 현재 약 25만명이 거주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같은 디고스 도시 내의 마을마다 문화가 다르고, 습성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디고스 예일교회’와 ‘아팔라야 예일교회’ 인근에도 다양한 이름의 Village들이 있는데, 대부분 같은 부족에서 이주한 사람들이거나, 같은 성 (Last Name)을 사용하는 친족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비록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할 지라도 다른 Village에 사는 사람들과는 어딘가 모르게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디고스 교회’와 ‘아팔라야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금년, 디고스 교회는 창립 9주년을 보냈고, 아팔라야 교회는 창립 4주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 30분에 ‘디고스 예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오전 11시에는 ‘아팔라야 예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Village’가 다르고, 배경이 상이한 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도 서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디고스 교회의 찬양은 무척 뜨겁고, 열정적이지만, 아팔라야 교회의 찬양은 점잖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설교에 대한 반응은 그 반대입니다. 디고스 교회는 점잖게 말씀을 받아 드리지만, 아팔라야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면 큰 ‘아멘’ 소리와 함께 성도들의 눈에서 마치 설교가 빨려 들어가는 듯한 몰입감을 느낍니다.



헌금 찬양과 같은 특별 찬양은, 디고스 교회에서는 비교적 경험이 많고 찬양을 잘하는 성도들이 돌아 가며 합니다. 연습도 많이 한 까닭에 매우 아름다운 찬양으로, 듣는 모든 이에게 큰 은혜를 끼칩니다. 하지만 '아팔라야 교회'는 찬양을 잘 하는 성도 위주가 아니라, 순서에 따라 모든 성도들이 매주 돌아가며 특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합니다. 디고스 교회 보다는 완성도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각자 온 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지,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드러본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도 있지만, 순서가 되면 '사양' 하는 일이 없이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체에 장애'가 있고, '말이 어눌한' 교우들은 웬만하면 특별 찬양에서 제외가 될 듯도 한데,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찬양을 합니다. 저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셨겠다 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조금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에, 놀랍게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 가득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21)**







이곳에서 생활한지 벌써 16년을 지나고 있지만, 금년처럼 뜨거운 태양은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날씨에 관한 뉴스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을 미루어 보아, 최근 이곳의 날씨는 현지인들에게도 매우 이례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침 온도가 영상 40도 (화씨 104도)로 시작하여, 한 낮의 체감 온도는 48도 (화씨 118도)까지 올라가기 일쑤입니다. 많은 학교들이 더위로 인해 휴교 중입니다. 특히 금년은 마띠은혜교회' 건축으로 인해 야외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 '밥' 보다도 '찬 물'을 먼저 찾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작업자들은 땀을 비 오듯이 쏟으며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친교실 (Fellowship Hall), 교육실 (Vision Center)의 바닥을 타일로 마감하였고, 창문 설치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은 현지 목수를 통해 직접 제작한 23개의 '문'을 꼼꼼하게 부착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내의 페인트 작업도 많은 진전이 있어서, 이제 제법 교회 모습들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실외에서는 교회 마당 공사와 벽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중장비를 동원하여 벽과 기둥을 세울 위치에 기초를 다지고 있고, 빗물에 취약하지 않도록 배수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건축을 시작한지 벌써 31주를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건축을 완료하는 그 날까지, 더위 가운데 수고하는 작업자들에게 아무런 안전 사고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며,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 2:21)**







##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교회 /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마띠 은혜교회 건축을 위하여
3.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을 위하여
5.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214-17 45 th Drive, Bayside, NY 11361

